

신화적 생명정치와 생츠크어리의 정동지리

- 동아시아 곰 신화의 탈식민적 역사화

권두현*

1. 신화적 생명정치의 동아시아: 곰의 삶에 대한 역사적 관점의 필요성
2. 생츠크어리의 딜레마: 애니머시의 관계와 정착민 식민주의적 위계
3. 다중 변역을 위한 가능성의 복잡성: <골든 카무이>의 경우
4. '갑금형 농장'의 세계와 '네크로-케어'로부터의 탈정동: <처의 감각>의 경우
5. 생츠크어리의 토착적-관계적 정동지리: 중간 연대의 변혁적 정치를 위하여

국문초록

정착민 식민화는 정착민 국가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력을 계승, 확장, 자연화하는 글로벌 통치 체제에서도 유지되는 특정 방식의 생명정치를 생산한다. 그 방식은 종종 인간과 비인간을 포괄하는 다중 권력관계의 정동적 조율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조율에 의해 구체화된 장소가 바로 생츠크어리다. 생츠크어리를 정착민 식민주의적 생명정치의 지형도에 배치하기 위해, 이 글은 다른 역사적-지리적 배경을 가진 두 편의 작품 노다 사토루의 만화 <골든 카무이>와 고연옥의 희곡 <처의 감각>을 비교한다. 두 작품을 통해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어떻게 정착민 식민주의적 정동지리의 (재)형성, 특히 생츠크어리 만들기 과정을 의미화하는지를 살핀다.

<골든 카무이>는 아이누 곰 신화의 재서사화를 통해 다중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그 신화가 정착민 서사로 전유되는 순간 탈식민적 잠재

* 연세대학교 비교사회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력은 제도적 질서 속에 귀속된다. 반면 <처의 감각>은 '감금형 농장'의 정동이 사회 일반으로 확장된 세계를 그려내며, 돌봄과 통제가 중첩된 폭력의 체계 속에서 재야생화의 감각을 실천한다. 전자가 '포섭된 다중성'을 보여준다면, 후자는 '거부로서의 공존'을 상상한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이 글은 신화와 생츠퉈어가 역사적 기억과 정동적 실천의 순환 구조를 이루며, 식민적 생명정치의 질서에 균열을 내는 탈식민적 사유의 두 축으로 작동함을 밝힌다. 나아가 인간과 동물, 토착성과 식민성, 정주와 이동이 서로 뒤섞이는 정동 체제의 재배치 속에서 중간 연대의 변혁적 정치를 모색한다.

(주제어: 신화, 생명정치, 생츠퉈어, 정동지리, 애니머시, 골든 카무이, 처의 감각)

1. 신화적 생명정치의 동아시아: 꿈의 삶에 대한 역사적 관점의 필요성

동아시아의 신화와 민담에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神)의 관계를 매개하는 존재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중에서도 '꿈'은 한국의 단군신화와 곰나루 설화, 일본 홋카이도 아이누족의 이오만테 의례 등에서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 자리해 왔다. 이러한 꿈 형상은 단순한 민속적 상상력이 아니라, 각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기억이 중층적으로 축적된 결과물이며, 특히 근대 이후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영향 속에서 새로운 의미망 속으로 재편되어 왔다.

이 글은 일본 만화 <골든 카무이>(ゴールデンカムイ)¹⁾와 한국 희곡

1) 노다 사토루(野田サトル), 『골든 카무이』(전31권), 대원씨아이, 2022. 12. 19. 제31권 발간 완료. 원작 <골든 카무이>는 『주간 영 점프』(週刊ヤングジャンプ)를 통해 2014

〈처의 감각〉²⁾에 나타난 곰 형상을 통해, 동아시아의 토착 신화가 현대적 맥락에서 어떻게 재해석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³⁾ 〈골든 카무이〉는 노다 사토루(野田サトル)가 창작한 작품으로, 러일전쟁 이후 홋카이도에서 일본 제국의 확장 과정에서 주변화된 아이누족의 문화와 그들의 곰 신화를 다룬다. 〈처의 감각〉은 고연옥의 희곡으로, 한국의 곰 신화를 바탕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처(妻)’의 위치에 놓인 여성 주체의 ‘몸 둘 바(處)’의 불안 정성을 탐색한다.

서로 다른 역사적·지리적 배경을 지닌 두 작품은 인간/동물의 경계, 정착/비정착, 돌봄/통제의 긴장을 공통적으로 드러내며, 이는 근대 국가가 생명과 삶에 개입·관리하는 체제인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생명 정치’ 개념을 통해 보다 선명하게 분석될 수 있다. 이 글은 생명정치적 관점을 동아시아적으로 맥락화하여, 〈골든 카무이〉에서 아이누의 곰 신화와 의례가 근대 국가 형성기 토착민과 이주민 사이의 복합적 권력 관계를 반영하는 방식과, 〈처의 감각〉에서 곰의 형상이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가 통제되고 저항하는 과정과 결부되는 양상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년 제38호부터 연재되어 2022년 제22·23호에서 완결되었다. 2016년도 『이 만화가 대단하다!』(このマンガがすごい!) 남성부분 2등, 만화대상(マンガ大賞) 대상을 수상했다. 2018년도에는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手塚治虫文化賞) 대상을 수상했다. 2022년도에는 일본 만화가 협회상(日本漫画家協会賞) 코믹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 고연옥, 『처의 감각』, 이음, 2016. 희곡 『처의 감각』은 제5회 벽산희곡상 수상 작품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남산예술센터에서 〈곰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초연되었다.

3) 이 글에서 ‘동아시아’는 한국·일본·중국 등을 포괄하는 통상적 지역 구분을 뜻하기보다,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 설정 과정에서 ‘국민 신화’로 재편되거나 지워진 토착 신화적 층위를 비판적으로 사유하기 위한 분석적 범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일’의 국가 비교라기보다, 일본 만화 〈골든 카무이〉와 한국 희곡 〈처의 감각〉에 나타난 곰 형상을 통해 국민국가의 이름으로 온전히 환원되지 않는 토착적 상상력이 현대 텍스트에서 어떻게 재배치되는지를 검토한다.

야생동물/사육동물이라는 상이한 맥락에서 재해석된 토착 신화가 생명정치의 차이를 어떻게 드러내며, 동시에 생명권력의 중층성과 대안적 관계성에 대한 상상을 어떻게 열어두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 글은 두 작품의 곰 형상에 초점을 맞춰 토착 신화의 재기입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조건을 추적하고, 이를 현대의 글로벌 정동 체제와 연결한다. 두 작품이 제시하는 곰은 대결/정복의 원형을 반복하기보다 인간과 비인간의 뒤얽힘을 통해 관계적 존재론의 대안적 역사를 호출하며, 이 점에서 조지프 캠벨(Joseph Campbell)이 제시하는 신화의 보편적 패턴이나 구조주의적 독법이 신화의 물질적 형상과 지리·역사적 맥락을 삭제하는 방식과 어긋난다. 동아시아의 곰 신화가 반복적으로 재서술될 때, 곰은 원형의 복제가 아니라 물질적·정동적 배치 속에서 활성화되는 알레고리로 제시되고, 재서술된 신화는 특정 조건 속에서 축적된 정동을 순환·축적시킨다. 이러한 재서술은 진보와 계몽의 신화에 포섭되며 훼손된 토착 신화의 맥락을 복원함으로써, 박제된 신화적 형상의 물질성을 다시 재물질화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데니스 페레이라 다 시우바(Denise Ferreira da Silva)는 계몽이라는 보편성이 전 지구적 근대성의 생명정치적 장치들로 변형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과학적 의미와 일반적 의미 모두에서) 자연적 조건과 타자의 권력에 모두 예속되는 조건”으로서 정동유발성(affectability)의 정의를 제시한 바 있다. 그가 규정하는 “투명한 나(transparent I)”는 인식하고 정동하는 행위성을 가지는 반면, “정동유발적 나(affectable I)”는 “비유럽적 정신의 과학적 구성”이다.⁴⁾ 이와 같은 정의를 유념한다면, 조지프 캠벨의 독법을 비껴가는 동아시아의 곰, 더 나아가 이를 중심에 둔

4) Denise Ferreira da Silva, *Toward a Global Idea of Ra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7.

동아시아의 토착 신화는 '계몽주의적 문명 서사 바깥에 위치한 신체의 과학적 구성'이라 할 만하다. 곰 신화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동물의 경계 넘기는 정신과 신체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토착적 이해를 보여주며, 이는 정착민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가 강제한 존재론적 분류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시사한다.

이 글은 생명권력의 주요 조건으로서 정착민 식민주의의 유산을 유념하면서, <골든 카무이>와 <처의 감각>의 맥락을 정동지리적으로 마련해 보이고자 한다. 정착민 식민주의는 구조적이면서도 정동적인 방식으로 생명권력을 행사한다. 패트릭 울프(Patrick Wolfe)가 주장하듯이, 정착민 식민주의는 '사건이 아니라 구조',⁵⁾ 즉 완료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존재론, 인식론, 합법성을 특권화하는 정치적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구조는 지속적이고, 그 지속성은 정동에 의해 확보된다. 울프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정착민 식민주의가 합병과 대체를 통해 원주민의 제거를 추구함으로써 정착민 사회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생명권력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정착민 식민주의적 위계가 '비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화됨으로써 지속·확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착민 식민화는 개별 정착민 국가를 넘어, 그 권력을 계승·확장·자연화하는 글로벌 통치 체제 속에서 특정한 방식의 생명정치를 생산해 왔으며, 이는 종종 '인간'과 '비인간'을 포괄하는 다중 권력관계의 정동적 조율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율이 공간적으로 구체화된 대표적 장소가 바로 '생츠퉈리(sanctuary)'다. 원래 성역(聖域)을 의미하던 생츠퉈리는 오늘날 안전, 보호, 면역의 의미를 포괄하며 동물의 피난처를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된다.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5) Patrick Wolfe, "Settler Colonialism and the Elimination of the Native,"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8(4), 2006, p.388.

‘sanctuary’를 “종교적 성역이자 보호 또는 피난을 제공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으며,⁶⁾ 동물 보호소 국제 인증 기관인 동물 생츠퍼리 세계 연맹(Global Federation of Animal Sanctuaries, GFAS)은 이를 “학대·부상·유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동물에게 평생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로 보다 구체화한다.⁷⁾

〈골든 카무이〉와 〈처의 감각〉의 비교를 통해, 이 글은 인간-동물 상호작용에 관한 서사가 정착민 식민주의적 정동지리의 (재)형성, 특히 생츠퍼리 만들기 과정을 어떻게 의미화하는지 분석한다. 두 작품은 토착 신화를 매개로 정착민 주체성을 정동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동물성에 기반한 탈식민주의적 애니머시 연속체(continuum of animacy)를 상상할 가능성 또한 제시한다. 이에 이 글은 곰 형상을 중심으로 동물-원주민-정착민의 삼원적 접근을 취하며 정착민 식민주의에 대한 다중 분석을 수행한다. 정착민 식민주의의 이론화와 역사화를 위해 인간 너머의 존재—특히 동물—은 필수적이다. 식민주의적 프로젝트에서 동물은 생계의 육체나 노동력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정체성을 가시화하는 표식으로서 정동유발성을 발휘하며 식민주의적 위계를 지탱해 왔기 때문이다.

빌리 레이 벨코트(Billy-Ray Belcourt)가 강조하듯 “정착민 식민주의는 동물성에 투자하고, 따라서 동물 신체를 식민화의 대상으로 재구성하여 정착민의 정치 생활 방식을 규범화한다.”⁸⁾ 생츠퍼리는 바로 이 규범화

6) SANCTUARY, Merriam-Webster.com Dictionary, Merriam-Webster,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sanctuary>. (접속일: 2026.1.10.)

7) 동물 생츠퍼리 세계 연맹은 ‘진정한 생츠퍼리’의 조건으로 구조된 동물에게 평생 돌봄(lifetime care)을 제공할 것, 상업적 거래·전시·번식·접촉 체험 등 동물의 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배제할 것, 그리고 동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영리 운영 원칙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Global Federation of Animal Sanctuaries, “What Is a Sanctuary?”, GFAS 공식 웹사이트, <https://sanctuaryfederation.org/about-gfas/what-is-a-sanctuary/>. (접속일: 2026.1.10.)

의 장 안에서 재사유되어야 하며, 특히 동물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정치가 곧바로 해방의 정치로 등치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시민'이라는 표식이 부여되는 순간, 그 표식 바깥에서 동물의 신체에 새겨져 온 인종화·젠더화·동물화가 뒤엎힌 식민화의 역사가 오히려 자연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조 토드(Zoe Todd)가 언급하듯, 정착민 식민지 질서를 재생산하기 위해 인간 너머의 존재들—동물을 포함한 자연적 존재들—이 어떤 방식으로 동원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정착민 식민주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이다.⁹⁾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대어 생츠퉈어의 함의를 탈식민적 차원에서 재고함으로써, 정착민 식민주의가 구축해 온 생명정치적 위계에 균열을 내고 대안적 공존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생츠퉈어의 딜레마: 애니머시의 관계와 정착민 식민주의적 위계

최근 수십 년 동안 동물 보호 운동가들이 동물들이 착취당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인간에 의해 살처분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생츠퉈어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다. 줄리에타 후아와 닐 아후자(Julietta Hua and Neel Ahuja)는 의학 연구에 사용되었던 침팬지 생츠퉈어리에 대한 연구에서 생츠퉈어를 “인간 보호자와 보호받는 동물

8) Billy-Ray Belcourt, “Animal Bodies, Colonial Subjects: (Re)Locating Animality in Decolonial Thought”, *Societies* 5(1), 2015, p.10.

9) Zoe Todd, “Commentary: The Environmental Anthropology of Settler Colonialism, Part I,” *Engagement*, 2017.4.11., <https://aesengagement.wordpress.com/2017/04/11/commentary-the-environmental-anthropology-of-settler-colonialism-part-i/>. (접속일: 2026.1.10.)

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회성 실천에 의해 정의되는” 사회적 제도이자 개념적 장치로 설명한다.¹⁰⁾ 생츠퉀어리는 다른 동물 보호시설과 달리, 그곳의 보호자들이 제공하는 개선된 환경조차 돌봄의 대상인 동물들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공간이다. 생츠퉀어리의 보호자들은 이곳이 ‘야생’을 재현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야생동물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관리된 서식지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생츠퉀어리의 보호자들이 아무리 ‘인간적’ 의도성을 가지고 더 큰 자유를 보장하려 한다면, 그것이 동물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거나, 근본적으로 동물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바꾸지는 못한다. 생츠퉀어리는 보호 중인 동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가두고 있는 것이다.¹¹⁾

생츠퉀어리의 동물들이 더 이상 학대와 착취의 시스템에 붙잡혀 있지 않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인간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캐런 에머만(Karen Emmerman)은 생츠퉀어리가 “윤리적 회복을 향한 과정이지,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¹²⁾ 생츠퉀어리는

10) Julietta Hua and Neel Ahuja, “Chimpanzee Sanctuary: ‘Surplus’ Life and the Politics of Transspecies Care,” *American Quarterly* 65(3), 2013, p.619, p.634.

11) PAWS(Performing Animal Welfare Society) 생츠퉀어리의 공동 설립자인 팻 터비(Pat Derby)는 보호소에서 노령화된 아시아 코끼리 태미와 애니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다리에서 마지막으로 시술을 제거한 후, “우리가 필요하지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프로그램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동물들)의 감옥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 발언은 생츠퉀어리가 돌봄의 공간인 동시에 통제의 공간이라는 사실, 즉 윤리적 실천이 필연적으로 한계를 내포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2) “우리는 동물들에게 착취적인 포획 환경보다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종의 전형적인 모든 필요를 충족하는 자연스러운 삶을 제공할 수는 없다.” Karen Emmerman, “Sanctuary, Not Remedy, The Problem of Captivity and

“피할 수 없는 과거와 포로 상태의 현재에 둘러싸인 새로운 시작의 장소”이며, 이전 포로 생활의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많은 동물들에게 “지속적인 트라우마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녀는 생츠퉈리를 “인간이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적 실천을 수행하는 장소”로 보지만, “평생 포로 상태가 동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그 윤리적 실천조차 어떤 의미에서는 오염되어 있다”고 지적한다.¹³⁾ 에머만이 주목하는 것은 생츠퉈리 활동에 내재된 딜레마이다. 동물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생활 조건과 최대한의 자유를 제공한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생츠퉈리의 동물들과 보호자들은 여전히 그곳 바깥의 인간 사회 전반에 작동하는, 인간과 동물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광범위한 권력관계에 얽매어 있다. 그럼에도 생츠퉈리 활동이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포획 및 통제 상태의 동물이 가능한 한 자유롭게 느낄 수 있도록 그곳의 환경이 (의도적으로) ‘자연’에 근접하게 관리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생츠퉈리가 인간이 동물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고, 근본적으로 포획의 윤리에 대해 재고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과적으로 생츠퉈리는 포획에 대해 안심하게 함으로써 통제 상태를 규범화하는 수단이 될 위험이 있다.¹⁴⁾

생츠퉈리는 다양한 수준의 인간중심주의적 실천을 통해 동물을 개념화하고 돌보는 곳이다. 또한 생츠퉈리는 동물의 신체는 물론, 삶과 죽음 자체를 통제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는 네크로-케어(necro-care)의 행위를 통

the Need for Moral Repair,” *The Ethics of Captivity*, edited by Lori Grue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221.

13) Karen Emmerman, 위의 책, p.230.

14) “일단 동물이 생츠퉈리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 동물을 만나고, 알고, 학대와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러면 동물을 돌보는 반응이 뒤따른다. 동물은 동물원에 있는 동물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낭만화되고, 생각되고, 경외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그 동물의 고통이 끝나는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끼고,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Karen Emmerman, 위의 책, p.229.

해 설명될 수 있다. 네크로-케어란, 돌봄의 명목 하에 특정 생명의 보존을 위해 다른 생명의 죽음을 관리하고 결정하는 모순적 실천이다. 네크로-케어는 생츠퍼리 거주 동물을 돌보기 위해 보호자가 생츠퍼리 내외부의 다른 특정 동물을 죽이는 행위, 또는 거주 동물이 건강하지 않아 계속 살 수 없을 경우에 안락사를 결정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다큐멘터리 <생츠퍼리>는 생츠퍼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역설하면서도, 바로 이를 위해 요청되는 네크로-케어의 행위들을 화면에 함께 담아내고 있다.¹⁵⁾ <생츠퍼리>에서 청주동물원의 진료사육팀장을 맡고 있는 수의사 김정호는 동물원을 생츠퍼리로 바꾸려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동물복지활동가 최태규는 동물원 내에 사육곰 생츠퍼리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받고 청주동물원의 직원이 된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야생동물을 안락사하면서 생츠퍼리가 생기기를 희망한다. 구조와 돌봄이 끝내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 절망과, 그 죽음의 반복을 멈추기 위해 새로운 돌봄의 방식을 모색하려는 희망이 교차하는 이러한 네크로-케어는 ‘잔인한 낙관’의 정동적 행위다.¹⁶⁾ 포식자의 잠재적 위협, 질병과 부상, 더 나아가 장애를 가진 신체의 고통을 근거로 살처분되는 동물은 인간중심주의의 과학적 구성이라 할 만하다. 이처럼 동물을 인간의 손으로 죽이는 실천은 생츠퍼리 (또는 기타 보호시설) 외부

15) 왕민철, 『생츠퍼리』, 시네마달, 2022.

16) 로런 벌랜트(Lauren Berlant)는 ‘잔인한 낙관’을, “자신의 번영과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믿는 바로 그 대상이 오히려 그 가능성을 가로막는 상태”로 정의한다. (로런 벌랜트, 『잔인한 낙관』, 박미선·윤조원 역, 후마니타스, 2024.) 이는 욕망이 대상에 매여 있음으로써 유지되는 정동적 관계이며, 주체는 그 관계가 자신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한다. ‘네크로-케어’는 바로 이러한 역설적 정동의 구체적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돌봄의 실천이 죽음의 관리와 맞닿아 있고, 생명을 연장하려는 행위가 죽음을 제도화하는 과정에 동참하게 될 때, 돌봄은 ‘잔인한 낙관’의 형태로 작동한다.

사회에 만연한 인간-동물 간 권력관계를 재생산한다. 이와 같은 네크로-케어의 실천은 살처분의 가치 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살처분의 가치 체계는 곧 애니머시 위계(animacy hierarchy)다.¹⁷⁾

다큐멘터리 <생츄어리>에서 그려진 청주동물원은 장애 동물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바로 이 다큐멘터리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듯, 동물의 장애는 번식 과정에서의 유전적 요인일 수도 있고, 생츄어리나 기타 보호시설에 도착하기 전의 부상과 부실한 관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장애의 원인이 복잡적이라는 사실은, 돌봄이 단순히 개별 동물의 치료나 보호에 국한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청주동물원과 같은 보호시설은 이러한 돌봄을 수행하지만, 여전히 인간이 설계하고 관리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동물의 행위적 역량이 구조적으로 제약된다. 그런 점에서 생츄어리는 인간-동물의 이원적 관계를 넘어, 동물이 스스로의 행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중 관계망이 형성되는 환경으로 새롭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장애가 개별화된 신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신체적 행위 역량을 불가능성으로 몰아넣는 환경에 있다고 보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따르면, 생츄어리는 장애 동물의 경험과 장애 개념 자체를 동시에 변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모델이 가리키는 ‘환경’은 생츄어리 바깥에서 동물의 장애를 생산해온 정착민 사회라 할 수 있다. 정착

17) 멜 Y. 첸(Mel Y. Chen)은 『애니머시: 생명정치, 인종적 물질성, 그리고 퀴어 정동』(*Animacies: Biopolitics, Racial Mattering, and Queer Affect*, Duke University Press, 2012) ‘애니머시’를 단순한 생물학적 활력이나 생명성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 권력의 체계 속에서 구성되는 행위성과 정동적 역량의 위계로 정의한다. 그녀는 애니머시 개념이 종종 인간 > 동물 > 사물 > 물질로 이어지는 위계로 환원되며, 그 위계가 인종화·젠더화·장애화된 존재들을 배치하고 차별하는 정치적 도식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한다.

민 사회는 동물의 땅을 점령하고 야생동물을 가축화함으로써 그들을 사유 재산 또는 동산노예로 조직해 왔다. 동물의 장애는 개별적 학대 행위만이 아니라, 축사 같은 물리적 시설을 넘어 정착민 사회 전반에 깔린 위협과 폭력의 정동적 잠재태—일상 속에서 투명하게 작동하는 힘—속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문제는 폭력의 결과로서의 ‘고통’만을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폭력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경제적 가정을 겨냥하는 데 있다. 로런 코먼(Lauren Corman)이 지적하듯 “비인간 동물 주체성을 고통과 희생의 재현으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 고통의 재현만으로는 (...) 자본주의 산업의 지속을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못할 수 있다.”¹⁸⁾ 이 문제는 동물 너머의 ‘인간’을 ‘정착민’으로 이해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다. 요컨대, 생츄어리가 환기하는 동물의 장애는 정착민 사회를 탈자연화함으로써 비로소 탈식민주의적 전환을 가능케 한다.

동물의 땅에서 펼쳐지는 다중 관계에는 원주민이 포함되어 애니머시 연속체를 이룬다. 원주민은 비인간 동물에 사변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들의 상태 또는 동태를 가늠하고, 사변적 우화(Speculative Fabulation)를 만들어 공유했다.¹⁹⁾ 그것이 바로 토착 신화다. 그런데 정착민 사회는 신화의

18) Lauren Corman, “Ideological Monkey Wrenching: Nonhuman Animal Politics beyond Suffering,” *Animal Oppression and Capitalism, Vol.2: The Oppressive and Destructive Role of Capitalism*, ed. D. Nibert, Santa Barbara, Praeger, 2017, p.252, p253.

19) 인류세(Anthropocene)와 자본세(Capitalocene) 문제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도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는 쓸루세(Chthulucene)를 제시한 바 있다. 해러웨이는 쓸루세 시대의 공생적(symptotic) 실천을 다채로운 의미를 함축하는 SF로 명명한다. SF는 해러웨이가 대안적 사유의 원천으로 삼는 과학소설의 약어다. 하지만 단순히 특정 문학 장르나 장르 텍스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F는 또한 동시에 “사변적 우화(Speculative Fabulation), 실뜨기(String Figures), 사변적 페미니즘(Speculative Feminism), 과학적 사실(Science Fact), 지금까지(So Far)”를 의미

사변적 인프라에 해당하는 대지를 테라 놀리우스(terra nullius), 즉 ‘무주지(無主地)’로 취급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정착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를 이식했다. 이 과정에서 동물을 인격화, 더 나아가 신격화했던 원주민의 세계관과 그들의 정동은 정착민의 인프라 속에서 전유되고 변형된다. 예컨대, 호주 원주민들의 ‘드리밍(Dreaming)’ 신화에서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던 울루루(Uluru)가 오랫동안 ‘에어즈록(Ayers Rock)’이라는 식민지 명칭으로 불리며 관광자원화된 과정, 그리고 홋카이도에서 아이누족의 ‘이오만테’ 의례가 단순한 민속놀이로 재해석되고 상품화된 현상은 이러한 전유와 변형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요컨대, 정착민 식민주의적 인프라는 ‘무주지’의 신화에 기반한다. 다중 관계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츄어리는 빈 땅으로 ‘발견’되어 정착민 식민주의를 지속시킨다.

생츄어리는 정착민 식민주의적 어셈블리지의 일부다. 이와 동시에, 생츄어리는 동물의 거주권과 시민권에 입각한 주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대안적 존재론을 가능케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대안적 존재론은 동물을 정착민 국가에 포함시킴으로써 식민화의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는 과정을 자연화하고 비가시화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수 도널드슨(Sue Donaldson)과 윌 김리카(Will Kymlicka)가 제안하는 주권으로서의 동물권에 대한 빌리 레이 벨코트의 문제제기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주폴리스: 동물 권리를 위한 정치 이론』에서 도널드슨과 김리카는 “정치적, 문화적 구성원”이라는 언어로 동물성을 재구성하여, 신자유주의 시민권의 현대적 적용을 모델로 한 인간-동물 관계의 비(非)종차별주의적이고 의무론적인 재구성을 제안한다.²⁰⁾ 도널드슨

한다. 과학-예술이자 스토리텔링으로서 쓸루세 시대에 함께 살아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유이자 실천을 의미한다. 도나 해러웨이, 『트리블과 함께하기』, 최유미 역, 마농지, 2021, 10쪽.

과 킨리카는 동물권 이론이 부정적 권리(즉, 살해되거나 감금되지 않을 권리)를 넘어서는 사유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불가침 권리를 가진 존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권에 관한 일반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주폴리스』를 통해 도날드슨과 킨리카는 사육동물(domesticated animals)을 시민으로, 경계동물(liminal animals)을 주민으로, 야생동물(wild animals)을 주권 국가의 구성원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새로운 인간-동물 간의 관계 의무를 구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벨코트는 비판적 동물 연구와 주류 동물 운동이 정착민 식민주의에 대한 분석을 중심에 두지 못한 채, 백인 우월주의 정착민 국가의 존재를 당연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주폴리스』가 바로 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한다.²¹⁾ 벨코트의 이와 같은 비판을 유념했을 때, 생츠퍼리에 대한 정착민 식민주의적 관점의 부재는 그 자체로서 동물의 토착성과 원주민의 정체성이 비가시화되는 식민주의적 폭력의 한 형태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와 같은 생츠퍼리의 딜레마는 그곳의 한계가 곧 가능성이라는 사실로도 이해될 수 있다. 생츠퍼리의 탈식민주의적 공간화는 동물성을 자원이 아니라 대안 정동의 매개체로 전환하는 데서 가능성을 확보한다. 동물의 신체를 추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감정·개성·사회성의 그릇, 곧 역량(capacity)으로 가늠할 때 대안 정동은 생성되며, 생츠퍼리는 이 전환을 촉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착민의 권리 모델을 그대로 이식한 식민주의적 동물권과는 다른 차원에서 동물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변적 도구, 곧 ‘가늠좌’가 바로 신화다. 신화는 정착민 식민주의

20) 수 도널드슨·윌 킨리카, 『주폴리스: 동물 권리를 위한 정치 이론』, 박창희 역, 최명애 감수, 프레스탁, 2024.

21) Billy-Ray Belcourt, 앞의 책.

적 정동이 '빈 땅'으로 구성해온 공간을 다시 다중 관계로 채우는 사변적인 프라이며, 요컨대 생츄어리의 실뜨기 놀이(String Figures)다. 생츄어리는 인간과 동물, 삶과 죽음 사이의 공간이자 동물권과 질병권이 교차하는 지대이며, 여기서의 만남은 인간을 불편한 유사성의 자리로 끌어들이는 종간의 불안한 공통점과 '죽여도 되는 것'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한다. 동물의 정동적 행위주체성을 가늠하게 하는 역량이 신화에 있으며, 신화는 구조주의적 보편성이 아니라 탈식민주의적 정동을 담는 그릇이다.

3. 다중 변영을 위한 가능성의 복잡성: <골든 카무이>의 경우

생츄어리와 신화가 제시하는 탈식민적 사유의 가능성은, 근대 식민주의가 생명을 위계화하고 동물성을 폭력적으로 관리해 온 역사적 맥락 속에서 비로소 그 현실적 무게를 획득한다. 이러한 위계적 관리는 인간을 둘러싼 생명의 영역 전반으로 확장되었고, 그 구체적 양상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에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당시의 폭력은 인간뿐 아니라 야생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로 가해졌다. 식민지 시기 일본인들은 야생동물이 인간이나 가축에게 피해를 준다면, 식민지 조선의 호랑이, 표범, 곰, 늑대 등을 계획적으로 포획했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서, 1917년, 일본인 사업가 야마모토 다다사부로(山本唯三郎)가 추진한 '조선 호랑이 사냥 행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야마모토가 꾸린 사냥단의 이름은 '호랑이를 정복한다'는 의미인 '정호군(征虎軍)'이었다. "근래 점점 퇴패해 가는 우리 제국 청년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행사를 펼친다"²²⁾고 선언한 정호군의 출

정식이 벌어졌을 무렵, 조선총독부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짐승을 퇴치한다는 명분으로 ‘해수구제(害獸驅除)’ 정책 시행에 박차를 가했다.²³⁾ 식민지 조선에서 1천 2백여 마리의 곰이 죽임을 당했다.

정호군의 호랑이 사냥과 조선총독부의 해수구제에는 조선이 만들어낸 ‘호담국(虎談國)’이라는 자기 이미지에 대한 제국의 정동적 반응이 자리하고 있다. 최남선이 ‘조선은 호담국’이라며 호랑이 이야기를 문화적 정체성의 표지로 강조했을 때,²⁴⁾ 호랑이는 이미 토착적 신화가 매개하는 정동유발적 형상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호담국’ 표상은 조선을 동물과 인간이 뒤섞인 ‘자연의 공간’으로 감각하게 만드는 시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식민 통치의 맥락에서 이 표상은 조선을 ‘자연화’된 공간으로 재독해하는 식민적 시선과 쉽게 접속할 수 있었다. 정호군의 조직과 활동은 이러한 시선의 작동방식을 보여준다. 정호군은 ‘일본 남아의 담력을 보여주자’라는 구호 아래 호랑이 사냥을 수행했는데, 이들의 ‘정호군가’에는 ‘조선 호랑이를 모두 사냥하고, 내년에는 러시아의 곰을 사냥 하세’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다.²⁵⁾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선의 호랑이

22) <정호기(征虎記)>, 『매일신보』 1917.11.18., 3면.

23) 1917년, 조선총독부는 “1915~1916년 2년간 호랑이·표범·늑대·곰·멧돼지 등 맹수의 공격으로 359명의 사상자를 냈다”면서 이 정책을 밀어붙였다. 1915년 경찰관·헌병 3321명, 공무원 85명, 사냥꾼 2320명, 물이꾼 9만 1252명이 동원되었다. 1915~1916년 사이 호랑이는 24마리, 표범 136마리, 곰 429마리, 늑대 228마리가 죽어 나갔다. 호랑이·표범·곰의 먹잇감인 애꿎은 노루(8947마리)와 토끼(612마리) 등도 폐죽음을 당했다. 1919~24년 사이 6년간 포획된 호랑이는 65마리, 표범은 385마리였다는 통계가 있다. 포획된 호랑이 중에는 체중이 85관(318kg)~90관(338.5kg) 짜리 대형 호랑이가 포함돼 있었다. 당시 사이토 마코토(齊等實) 총독이 구입한 호랑이 가죽 2장은 크기가 7척(2m10cm)이나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기환, <조선 호랑이가 멸종된 이유... ‘일본 남아의 기개!’ 희생양이었다>, 『경향신문』, 2021.12.20.

24) 六堂閑人, <建國初頭以來久遠朝鮮의 表象 (6) - 朝鮮歷史及 民俗志上의 虎>, 『동아일보』, 1926.1.1.~2.11.

25) 행사에 참여한 기자가 지었다는 ‘정호군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가토 기요마사(加

와 조선인이 동일한 정복 대상으로서 병치되는 방식이다. 호랑이가 조선 문화와 자연의 상징이라면, 그것을 정복하는 행위는 곧 조선 자체의 정복과 통제를 상징한다. 앞서 언급한 데니스 페레이라 다 시우바의 개념적 틀에서 보면, 이는 조선인을 능동적으로 자신의 문화와 역사를 해석하는 인식 주체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정복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식민지 시기의 호랑이 사냥과 해수구제는 단순한 야생동물 관리 정책을 넘어, 조선인의 인종화와 동물화가 서로를 통해 강화되는 제국주의적 식민 통치의 '상연'이자 '제정(enactment)'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해수구제의 명분으로 조선에서 비인간 학살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던 시기, 홋카이도(北海道)에서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의 곰 사냥이 이루어졌다. 에도 막부 말기인 19세기 말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제가 홋카이도를 개척하기 위해 이주 및 개척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주민 아이누의 땅에 이주민들이 정착해 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과 이주민의 거주지는 물론, 인간의 거주지와 동물의 서식지가 겹치게 되었다. 그 결과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을 직접 공격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예컨대, 1915년 12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예조 불곰이 산케베쓰 지역의 마을로 내려와 두 차례에 걸쳐 여자와 어린이 등 6명(임산부 희생자의 태아 포함 시 7명)을 죽이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다.²⁶⁾ '산케베쓰 불곰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피해 규모와 충격의 크기 때문에 일본에서 대표적인 동물 재해로 반복 소환된다. 불곰은 12월

藤清正)의 일이며/지금은 아마모토 정호군.../일본 남아의 담력을 보여 주자/루스벨트 그 무엇이랴/호랑이여 오라.../올해는 조선 호랑이를 모두 사냥하고/내년에는 러시아의 곰을 사냥하세."

26) 지명인 '산케베쓰'는 원주민인 아이누족의 언어로 '강의 하류에 흐르는 강'을 의미한다.

14일이 되어서야 사살되었다. 토벌대가 불곰을 사살한 직후 사체를 운반 하려고 하자 이전까지 맑았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고 눈보라가 몰아쳤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구마아라시(熊嵐)’, 즉 ‘곰 폭풍’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으며, 이 사건의 충격으로 마을 주민은 대부분 타지로 이주했다. 홋카이도에서는 이 사건 이후 곰 사냥 명령을 내려서 100여 마리의 곰들이 사살당했다.

사건 당시 해당 마을 구장의 아들 오오카와 하루요시(大川春義)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냥꾼이 되었는데, 은퇴 이후인 1977년에 로쿠센사와(轆線澤) 마을에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모형과 불곰과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위령비를 세웠다. 위령비는 인간뿐만 아니라 불곰까지 함께 추모하려는 목적에 따라 세워졌다. 불곰 역시 무분별한 개척 행위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었고 그 때문에 굶주리게 되어 인간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 위령비 건립과 불곰에 대한 추모는 살처분의 논리를 넘어, 인간과 비인간의 죽음을 ‘돌봄’의 언어로 다시 배치하려는 네크로-케어적 실천으로 읽을 수 있다. 다만, 이 행위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가 땅과 삶의 주인이라는 토착적이고 관계적인 인식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주의적 네크로-케어와는 분명히 다르다. 이처럼 동일한 ‘돌봄’의 언어가 서로 다른 정동 체제로 분기될 수 있다는 점은, 곧바로 <골든 카무이>가 생츄어리의 양가성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러일전쟁 이후 홋카이도를 무대로 한 <골든 카무이>는 기본적으로 아이누 금괴를 둘러싼 추적전과 스기모토 일행, 일본군 제7사단, 전과자 집단의 세력 다툼을 핵심 플롯으로 삼는다.²⁷⁾ 이 방대한 서사에서 곰과 이오만

27) 작품의 기본 서사 맥락은 다음 대사를 통해 드러난다. “그 옛날 홋카이도에선 여기저기 강에서 콩알만한 사금이 자글자글 나왔대. 하루에 30돈(약 112g)씩 캐는 날이 매일 이어졌다더군. 이른바 골드러시지. …근데 그 무렵 메이지기(期)에 들어서고도 여

테는 중심 테마라기보다, 아이누 세계관이 호출하는 관계적 공존의 질서가 프론티어의 폭력과 포획의 논리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재배치되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국면으로 제시된다. 이야기 초반 스키모토가 거대한 곰에게 쫓기는 장면에서 아시리파는 곰을 야생의 위협으로만 환원하는 시선을 제지하고, 곧이어 아이누가 곰을 신의 세계로 되돌려보내는 의례를 행한다고 설명한다.²⁸⁾ 이 의례는 곰의 신체 처리 장면과 의례적 설명이

전히 연어나 사슴 사냥을 금지하고 땅을 빼앗는 등, 그들을 박해해 온 일본인들에게 저항하기 위해 일부 아이누들이 은밀히 군자금을 모았다. 사금을 대량으로. 그런데 그걸 한 남자가 훔쳐. 금을 갖고 있던 아이누를 몰살하고. 도둑맞은 금의 양은 20관(75kg)! 무려 8만 엔어치의 금괴야. 경찰에 쫓기던 그 남자는 금괴를 훔카어도 어딘가에 숨겨놓은 뒤 도망 다니는 게 고작이었는데 은닉장소를 누군가한테 알려줄 새도 없이 붙잡혔고... 사형수로서 땅 끝 마을의 감방, 아바시리 감옥에 처박혔어. 남자는 바깥쪽에 동료들이 있는지 어떻게든 금괴의 행방을 알려려 애썼지. 편지는 일체 쓰려 하지 않았어. 간수가 훔쳐가니까. 모두가 매장금의 행방을 찾고 있었거든. 출소가 임박한 녀석에게 몰래 편지를 쥐어주는 것도 무리였어. 그딴 건 간수도 뻔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출소하는 놈들 똥구멍까지 조사했거든. 금괴의 행방은 무슨 짓을 당해도 실토하지 않았어. 그것도 모자라... 간수들 중에도 악랄한 놈이 있어서 탈옥할 수 없게 금괴 강탈범의 한쪽 다리 힘줄을 잘라버린 거지. 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스키모토 씨... 닥이라면 무슨 수로 보물의 행방을 일본에서 가장 삼엄한 감옥에서 외부 인간에게 전달하겠냐고? 문신을 새겼어. 같은 방에 있던 사형수들 몸에 매장금의 행방을 표시한 암호를. 숫 만드는 것도 죄수들이 하는 노동 중 하나라 숫은 대량으로 손에 들어왔지. 거기에 침을 섞어서 그 다음은 숨겨놨던 바늘로 한 땀, 한 땀... 암호는 밖에 있는 동료밖에 알아볼 수 없는 거였나 봐. 죄수들이 풀었다간 새치기 당할 테니까. 그리고 남자는 죄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탈옥해라. 성공한 놈에겐 금괴의 반을 주겠다.” ‘죄수들의 문신은 전원이 하나의 암호를 이루고 있대.’ 문신에 관한 소문을 들은 일부 둔전병 놈들이 사형수를 이송하겠다고 강제로 끌고 나왔어. 경찰과 군에서도 금괴를 노리고 있으니 자기들이 그들을 숨겨두고 암호를 풀려고 한 거지. 그런데 그게 바로 죄수들에겐 탈옥할 찬스였던 거야. 욕심부린 놈들이 자기네를 밖으로 끌어낼 거라고 죄수들은 예상했거든. 이송 중이던 죄수들은 호위 병대를 몰살하고 몽땅 숲속으로 사라졌어. 그걸로 땡이야. 탈옥범들은 아무도 안 잡혔고. 금괴가 어떻게 됐는지도 ...아무도.” (제1화)

28) 이러한 세계관은 작품 초반 아시리파가 직접 설명하는 다음 대사에서 집약적으로 제시된다. “우린 우리 주변의 유용한 것들, 힘이 닿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걸 카무이(신)로서 공경하고 감사 의례를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어. 불이며 물이며 대지, 수목과

연속적으로 배열되는 방식으로 제시되며, 존중의 정서와 전유의 행위가 한 흐름 안에서 겹쳐지는 긴장을 남긴다. 그 결과 훗카이도는 야생동물의 생츄어리로 이상화되기보다, 카무이로서의 꿈이 동시에 사냥·거래·군사적 이동의 대상으로 포획되는 프론티어로 드러난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러일전쟁 귀환병 스기모토 사이치와 아이누 소녀 아시리파다. 아이누를 수탈의 비극으로만 재현하기보다 능동적 주체로 긍정적으로 그리려는 작가와 편집자의 전략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페어하고 차별 없는 동맹으로 연출된다. 그러나 나이토 치즈코(内藤千珠子)는 이러한 인물 구도가 공식적 표면의 뒤에 암묵적인 양해를 덧대는 제국적 성폭력의 논리에 의해 지탱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²⁹⁾

아시리파가 전하는 아이누의 신화와 지식은 인간·동물·신성을 위계로 고정하기보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란히 배치하는 애니머시 연속체의 질서를 제시한다. 이때 꿈은 동물 카무이로 이해되며, 이오만테는 꿈의 영혼을 신의 세계로 되돌려보내는 의례로서 카무이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이 세계관은 꿈과 인간을 혈연보다 책임으로 매개되는 친족관계로 묶고, 삶과 죽음의 연속성을 전제한다. 따라서 동

동물과 자연현상. 옷이나 식기 같은 도구에도 전부 카무이가 깃들어있고 신의 나라에서 아이누의 세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내온 거라 믿으며 소홀히 다루거나 그 역할을 마친 후의 기도를 게을리 하면 화를 입는다고 여겼지. 수렵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에게 동물 카무이는 중요한 신이야. 동물들은 신의 나라에선 인간 모습을 하고 있고, 우리 세계에서는 동물의 가죽과 살을 빌려 눌러 와있는 거지. 동물 카무이 중에서도 가장 격이 높은 건 꿈의 키문카무이고, 그 새끼꿈을 키우는 건 실로 명예로운 일이야. 1~2년간 우리 안에서 애지중지 키워져. 그렇게 키운 새끼꿈을 보낼 때는 온 마을이 성대한 의례를 열어. 이 의례를 '이오만테'라고 부르지. 노래하고 춤추고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새끼꿈의 뉘에 선물을 쥐어주고 신들의 세계로 돌려보내는 거야. 우리가 사는 이 세계까 즐거운 곳이라는 걸 다른 신들에게 전해달라고. 그래야 카무이들이 몇 번이고 다시 찾아와주니까." (제12화)

29) 나이토 치즈코, 『아이누의 히로인과 전쟁의 정동』, 『연결신체학을 향하여 - 정동적 존재론과 정의』, 동아대학교 젠더·어팩트연구소 편, 산지니, 2024, 70-75쪽.

물의 죽음은 살해의 잔혹성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되돌려보냄’의 논리 안에서 다시 의미화되며, 이오만테는 그러한 관계적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관습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 관계적 질서는 작품의 핵심 플롯, 즉 매장금을 둘러싼 폭력적 쟁탈이 본격화되는 순간부터 곧바로 시험대에 오른다. 홋카이도에 숨겨진 아이누의 매장금을 추적하는 다종의 개척자에 의해 <골든 카무이>의 생츄어리 모델은 균열을 노출시키며, 이상적 관계성의 표면 아래에서 위계화된 폭력이 전면화되기 시작한다. 전쟁 후 스기모토가 홋카이도로 이동하여 알게 된 사실은 ‘일본인의 박해’에 대항하여 아이누들이 비밀리에 군자금을 마련하고자 사금을 모았고, 그 금괴가 어딘가에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얼굴이 없어서, 좀 더 정확하게는 얼굴의 피부가 몽땅 벗겨져서 ‘달걀귀신’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금괴에 연루된 아이누를 모두 몰살하고 금괴를 빼앗아 은닉하고 수감 중이라는 소문도 함께 들려왔다. 스기모토는 불곰과의 싸움을 통해 아시리파를 만나는데 아시리파는 아버지 우이루쿠가 ‘달걀귀신’에게 살해당했다고 생각해서, 두 사람은 각자의 이유로 금괴의 수수께끼를 쫓는 ‘파트너’가 된다. 모험의 여정을 떠난 두 사람이 금괴의 수수께끼를 쫓는 과정에서 ‘달걀귀신’이 사실은 아시리파의 아버지라는 점이 밝혀진다.

홋카이도의 개척자들은 매장금을 쫓는 ‘인간 사냥꾼’들로서 생츄어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파괴는 오히려, 생츄어리라는 이름 아래 정착민 식민주의적 네크로-케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골든 카무이>에서 매장금의 위치는 ‘달걀귀신’에 의해 여러 수감자의 피부에 문신으로 분할 기입되고, 서사는 그 조각을 둘러싼 문신인 피 쟁탈전으로 진행된다. 탈옥에 성공해 홋카이도 각지로 흩어진 수감자들의 몸을 하나의 지도-파편으로 만들고, 그 파편을 다시 모아 전체 지도

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탈육수들을 사냥해 전리품으로서 문신인피를 벗겨 내는 과정, 즉 ‘박피’가 필요하다. 이때 박피는 단순한 폭력 묘사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신체를 정동적·경제적 자원으로 전환하는 네크로-케어의 기술로 나타난다. 문신인피의 채취는 인간의 피부를 동물의 가죽처럼 다루는 방식으로 수행되며, 그 기술은 동물의 박제술과 구분되지 않는다. 박제란 동물의 신체를 매개로 정동을 고정·전시·전유하는 물질적 장치인데, 여기서는 그 장치가 인간 신체에까지 적용됨으로써 애니머시의 연속체를 위계적 생명정치의 표면으로 옮겨 심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해, 박피/박제의 연쇄는 포획·전유가 지속되는 조건을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관리하는 정착민 식민주의적 네크로-케어의 작동 원리를 가시화한다. 알렉시스 터너(Alexis Turner)는 그의 저서 『박제술』(Taxidermy)에서 인상적인 표본을 포획하고 전시하는 것이 남성적 기량의 반영이자 지위의 척도로 여겨졌음을 밝힌 바 있다.³⁰⁾ 그러한 표본 수집과 전시는 제국적 남성성, 그리고 개척 또는 정복의 권위와 결합해 왔다. 그런 점에서 〈골든 카무이〉가 제시하는 인체, 특히 피부는 정착민 식민주의적 정동이 각인되는 장소라 해도 무방하다. 이 각인은 인체를 동물화하는 동시에 자산화한다. 이 또한 정착민 식민주의적이다. 요컨대, 문신인피는 정착민 식민주의가 물질적으로 구체화되는 표면이다.

‘아이누의 금괴 쟁탈전’과 연동하는 ‘문신인피 쟁탈전’이 진행됨에 따라 인간 사냥꾼들은 점차 금괴의 수수께끼와 결부된 아시리파를 욕망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된다. 아버지 우이루쿠가 살해되고 금괴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아시리파가 쥐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남자들이 아시리파의 소유를 놓고 다투고 서로 죽이는 구도가 펼쳐지는 것이다. 나이토 치즈

30) Alexis Turner, *Taxidermy*, Rizzoli, 2013, p.26.

코는 아이누의 금괴와 히로인 아시리파를 놓고 투쟁하는 남자들이 모두 제국적 권력에 대해 반역중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을 짚어낸 바 있다.³¹⁾ 대표적인 세력으로는 첫 번째로 육군 군인들의 그룹이 있으며 이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정권을 수립하려 한다. 두 번째로는 에도 막부 말기 신센구미(新撰組) 생존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그룹이 홋카이도를 독립시켜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소수민족 독립을 위해 러시아 혁명조직과 결탁하여 극동연방국가 형성을 노리는 세력이 있다. 각각 저항, 독립, 혁명 등을 추구하는 이들의 경합은 이념적이거나 담론적이라기보다도 물질적 형태를 취한다. 이들은 문신인피 쟁탈전을 벌이면서 서로를 죽이고 있지만, 이에 앞서 홋카이도라는 예외상태의 공간에서 죽게 내버려진 자들이다. 신체와 생명을 권력의 처분 아래 놓으면서 유용성이 사라진 사람들을 죽음의 위협에 유기하는 이와 같은 양상은 죽음정치(necropolitics)가 ‘돌봄’의 형식을 빌려 신체를 처분·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형되는 지점, 즉 네크로-케어로서 식민주의적이다.³²⁾ 프론티어는 개척지에의 ‘도착’과 함께 주어지는 정체성이 아니라, 이와 같은 죽음정치의 작동 과정에서 ‘살인’을 수행하고 이를 정당화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식민주의적 죽음정치의 작동을 유념했을 때, 〈골든 카무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골든 카무이〉가 재현하는 죽음정치의 세계는 누구를 살게 만들고, 누구를 죽게 내버려두는가. 원주

31) 나이토 치즈코, 앞의 글, 79쪽.

32) 아실 음벰베(Achille Mbembe)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생명정치 개념을 확장하여, 근대 권력이 더 이상 “삶의 관리”에 머물지 않고 “누가 살아야 하고 누가 죽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권력”으로 이행했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식민주의와 인종주의가 이러한 권력의 조건을 형성하며, 주권이란 “죽음을 부여하거나 죽음에 내맡기는 권력”이라고 규정한다. Achille Mbembe, “Necropolitics,” *Public Culture* 15(1), 2003, pp.11-40.

민 아시리파는 왜 살게 만들어지는가. <골든 카무이>가 제시하는 죽음정치의 세계에서 아시리파와 함께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불사신’ 스키모토다. <골든 카무이>는 곰 신화가 호출하는 관계적 공존의 정동을 활극의 동력으로 사용하면서도, 서사의 종착점에서 살아남는 주체성과 정당화의 문법을 ‘불사신’ 스키모토의 프론티어 서사에 더 강하게 수렴시킨다. 금괴를 향한 골드 러시, 개척지의 예외상태, 폭력의 합리화가 결합되면서 서사는 점차 서부극의 문법, 즉 정착민 프론티어 신화에 근접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서부극은 미국의 건국신화에 대응하는 정착민 신화다. <골든 카무이>는 이 신화를 홋카이도를 배경으로 삼아 구현한다. 서부극의 외피를 갖춘 <골든 카무이>의 정착민 신화는 곰 신화의 땅을 침탈하고 정복하는 서사적 전개 대신, 신화의 토착적이고 관계적인 힘, 즉 생츄어리의 힘을 정착민의 위상을 가진 남성에게 이양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 이양의 구조에 힘입어 ‘불사신’ 스키모토의 신화가 전경화되는 가운데, 아이누의 사변적 우화 또는 토착 신화는 점차 배경으로 밀려난다. 그러나 이 배경화는 단순한 주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토착 신화는 사라지기보다 정착민 서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조건으로 재배치된다. 그 결과, 관계적 공존의 정동은 정착민 식민주의적 규범과 접합되면서 그 규범을 교란하기보다 은밀히 지지하는 힘으로 전환된다. ‘불사신’ 스키모토와 아시리파가 함께 살아남는 결말은, 토착적 관계성의 힘이 정착민 국가의 질서 안으로 번역·흡수되는 방향을 암시한다.

아시리파가 정착민 남성과 함께 살아남았다면, 우이루쿠는 자신의 딸과 그녀의 공동체인 원주민 사회를 위해 죽음을 무릅쓴다는 점에서 극적으로 대비된다. <골든 카무이>의 활극은 아이누의 모계 혈통에 배치된 아시리파가 아버지 우이루쿠의 정체를 확인하고 부계 혈통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과 함께 펼쳐진다. 우이루쿠는 가라후토 아이누인 어머니와 폴란드인

아버지를 두었으며, 홋카이도 아이누 여성과 결혼하여 아시리파를 얻었다. 아버지의 신체적 특징인 '푸른 눈'은 딸에게 계승되고, 그를 아는 어른들이 '푸른 눈'을 보고 그녀를 우이루쿠의 딸로 인식하는 장면은 작중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다. 우이루쿠는 또한 홋카이도의 정착민이자 원주민 아내를 둔 혼혈로서 '서구 법'에 반항하는 아들의 형상을 취하고 있다. 패트릭 울프에 따라, 정착민 식민주의가 합병과 대체를 통해 원주민의 제거를 추구함으로써 정착민 사회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생명권력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 조르지오 아감벤(Giorgio Agamben)의 논의를 적용해 보면, 정착민 식민주의는 법의 예외를 작동시켜 원주민 제거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과정을 '법'의 질서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정착 질서를 확립해 왔다는 점을 읽어낼 수 있다.³³⁾ 가부장제의 혈연적 근원을 예외상태의 통치적 기원으로 언급하는 아감벤은 반항적인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아버지의 권력이 법으로 확장되면서 서구 법의 사회가 가부장적 혈연의 논리에 묶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우이루쿠는 극동연방국가를 설립하기 위해 유라시아를 횡단한 정착민이지만, 결국에는 홋카이도에 도착한 난민이기도 하다. 홋카이도의 다민족국가를 염원하는 그는 정착민 식민주의에 반항하는 아들이자, 아이누 소녀 아시리파의 아버지라는 점에서 존재의 역설을 체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우이루쿠의 존재론적 역설은 아시리파를 다시 한번 예외상태에 처하게 만든다. 여러 수수께끼가 풀리는 과정에서 아시리파의 아버지는 부당하게 금괴를 독차지한 것이 아니라 정식 '토지 관리서'를 딸에게 맡기려 했던 것

33) Patrick Wolfe, *Settler Colonial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Anthropology*, Continuum Publishing Group, 1999; Giorgio Agamben, *Means without End: Notes on Politic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0; 조르지오 아감벤,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박진우 역, 새물결, 2008.

으로 밝혀진다. 결국 스기모토와 고향으로 돌아간 아시리파는 ‘아이누와 와진의 협력’을 통해 문화를 후세에 전파하고자 노력한다. 정부와 협상 끝에 권리서의 토지 대부분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 나이토 치즈코가 이미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이야기의 종착점에서 아이누의 ‘토지 권리’는 국가의 권리에 맡겨졌기 때문에 선주권 논란이 불거질 일은 없다.³⁴⁾ 즉 예외 상태의 ‘아이누의 소녀’는 가부장적 계보와 국가 권력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착민 식민주의적 권력을 자연화하는 포지션으로 배치된다. 요컨대, 아시리파는 생츠퉈어의 관계적 힘을 호출하면서도 그 힘이 자유주의적 정착민 다문화주의로 번역되는 경로 위에 놓인다. 하지만 〈골든 카무이〉의 결말은 정착민 국가의 인프라로서 생츠퉈어의 존재를 모호하게 처리한 채, 정착민 국가가 인정한 아이누의 주권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생츠퉈어리에 잠재된 다종 변영의 가능성은 자유주의적 정착민 다문화주의의 언어로 번역되며, 그 과정에서 정착민 식민주의적 비대칭이 ‘인정’의 형식 속에 은폐될 위험을 드러낸다. 이는 생츠퉈어리로부터 정착민 식민주의적 관점을 배제한 채 동물권을 인정하는 방식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이다. 식민주의적 지배 구조의 재생산은 정착민 국가 또는 사회에 의해 부여된 비대칭적이고 비상호적인 형태의 인정에 원주민들이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골든 카무이〉가 아시리파를 앞세워 ‘순진무구한 소녀’라는 표상을 경유한 순응의 서사 속에서 인정을 통해 토착민 사회를 규정한 점은 ‘아이누의 미래’를 향한다는 그녀의 언표와는 다른 궤적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인정의 정치’는 원주민과 정착민 국가 간의 식민주의적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34) 나이토 치즈코, 앞의 글, 83쪽.

4. '감금형 농장'의 세계와 '네크로-케어'로부터의 탈정동: <처의 감각>의 경우

신의 자기희생이나 곰 의식 같은 모티프는 아이누 신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곰은 여러 문화권에서 사냥감이면서도 존경받는 존재로 동시에 위치해 왔고, 이 양가성은 '돌봄/통제'가 중첩되는 생츠퉈리의 논리와도 맞물린다. 한국에서 이 모티프는 단군신화를 비롯한 곰 신화의 계열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주되어 왔고, 고연옥의 <처의 감각>은 그 변주가 '감금형 농장(penitentiary farms)'³⁵⁾과 네크로-케어의 감각으로 접속되는 지점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처의 감각>은 신화 다시 쓰기의 맥락에서 주목받은 희곡으로,³⁶⁾ 단군 신화를 포함한 곰 신화의 여러 계보를 하나의 무대적 장치로 겹쳐 놓는다. 중요한 것은 '신화의 기원'을 확정하는 일이 아니라, 이 겹침이 생명정치의 공간(감금)과 감각(박탈)을 어떻게 생성하는지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동

35) 'penitentiary farms'는 교도소 내 노동형 농장이라는 직접적 의미를 넘어, 감금과 생산의 체계를 결합한 생명정치적 은유로 사용된다. 이 글에서 'penitentiary'를 '감금'으로 옮긴 것은, 그것이 제도적 처벌 시설로서의 의미를 넘어 '감금성(carcerality)'이 지시하는 구조적 통제의 메커니즘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36) 신화 다시 쓰기의 맥락에서 「처의 감각」에 접근한 대표적인 사례로 김성희의 연구가 있다. 김성희, 「동시대 희곡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과 신화 다시쓰기 방식 - <에비대왕>과 <처의 감각>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제67호, 한국연극학회, 2018, 5-46쪽. 「처의 감각」을 정전의 반열에 올린 제5회 벽산희곡상 심사평부터도 신화 다시 쓰기의 의미에 각별히 주목하고 있다. “고연옥의 「처(妻)의 감각」은 정형화된 문법을 다르지 않는 젊은 작가의 언어로 쓰인 작품이다. 이 희곡은 웅녀 신화를 바탕으로 현대의 시간 속으로 신화적 세계의 힘을 연장시킨다. 갈수록 초라해지는 삶의 조건 속에서 작가는 기억의 저편에 있는 신화로부터 인간을 비로소 인간답게 지탱해주는 가치를 길어오고 있다. 그뿐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 신화를 우리 삶 속으로 연장하고 있다. 단순한 구성 속에서 인물 관계를 굳이 대립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각각의 인물들의 최대치를 드러냈다.” (제5회 벽산희곡상 심사평)

화, 만화, 소설, 희곡 등 다양한 장르에서 반복적으로 다시 쓰여 온 신화소 가운데 하나는 용녀와 인간 남성의 결혼이다. 이 모티프는 단군신화에서 그 전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연옥의 희곡 〈처의 감각〉 또한 그 변주를 떠올리게 한다. 특히 〈처의 감각〉은 ‘아이를 죽이는 어머니’라는 설정에서 짐작되듯, 공주의 ‘곰나루 설화’로부터 신화적 모티프를 가져와 재구성한 사례로 볼 수 있다.³⁷⁾ 공주의 ‘곰나루 설화’는 중국 북동부의 소수민족으로서 에벤키족의 기원 신화와 유사하다.³⁸⁾ ‘봉화산의 암곰’ 이야기 또한 이와 유사한 계열의 신화에 해당한다.³⁹⁾ 특히 ‘봉화산 암곰’ 이야기는 에벤키족 기원 신화, 단군신화, 곰나루 설화가 모두 얽혀 있는 사례로서 〈처의 감각〉의 ‘마스터 플롯(master-plot)’으로서 자리하고 있다.

동거와 연모의 감정으로부터 비롯되어 결혼의 성립, 친족의 살해로 이어지는 일련의 곰 신화는 이들의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역량에 대한 서사적 구성이라 할 만하다. 이 구성은 역량의 근거로서 개별화된 곰의 신체만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곰의 신체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생츄어리’는 단순한 보호구역의 은유

37) (1) 어떤 남자가 나무하러 갔다가 암곰에게 잡혀 굴속에서 함께 살았다. (2) 곰은 새끼 두 마리를 낳았다. (3) 남자는 굴을 도망쳐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4) 뒤늦게 쫓아온 곰이 자식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해도 멈추지 않자 두 자식을 강물에 빠트리 죽이고 자기도 물에 빠져 죽었다. (5) 배가 뒤집히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에, 곰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자 배 사고가 그쳤다.

38) (1) 사냥꾼이 사냥하러 갔다가 암곰에게 잡혀 굴속에서 함께 살았다. (2) 곰은 새끼 한 마리를 낳았다. (3) 사냥꾼이 굴에서 도망쳐 뗏목을 타고 달아났다. (4) 새끼를 안고 따라오던 곰은 새끼를 두 쪽으로 찢어 한쪽은 사냥꾼에게 던지고, 한쪽은 자기가 가졌다. (5) 던져진 쪽은 에벤키족으로, 암곰이 가진 쪽은 곰으로 자라났다.

39) (1) 봉화산 꼭대기 커다란 소나무 아래 암곰이 살고 있었다. (2) 암곰은 백일기도를 올려 예쁜 소녀가 된다. (3) 곰녀는 길 잃고 쓰러진 사냥꾼을 구해준다. (4) 곰녀의 강요로 둘은 굴속에서 함께 산다. (5) 1년 후 사냥꾼은 처자식이 그리워 도망친다. (6) 곰녀는 사냥꾼을 찾아 헤매다 소나무 아래서 목을 매 죽는다.

가 아니라 관계가 유지·교섭·붕괴되는 구조적 원리, 즉 돌봄과 통제, 삶과 죽음의 중첩으로 작동한다. <처의 감각>은 이 원리를 ‘부재하는 생츄어리’의 형태로 뒤집어 제시한다. 동굴-이동 경로-도착지로 이어지는 공간 전이를 통해 관계적 공존이 감금의 질서로 번역되는 과정을 음화처럼 부각하는 것이다. 이 사회에서 사육의 정동은 자연화되며, 바로 그 자연화가 생명정치적 위계를 ‘상식’으로 만든다.

<골든 카무이>가 ‘야생’의 생츄어리를 둘러싼 프론티어의 포획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처의 감각>은 사육과 감금의 생츄어리를 무대로 전면화한다. 희곡과 연극의 형식 안에서 이동은 단순한 사건 서술이 아니라, 신체 동선과 공간 전이를 통해 각인되는 감각적 장치로 기능한다. 관객은 동굴, 이동 경로, 도착지로 이어지는 공간적 도식이 무대 위에 제시됨에 따라 공존의 관계가 어떻게 관리 가능한 생명으로 번역되는지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돌봄과 통제가 중첩되면서 감금의 문법으로 굳어지는 과정이 신체적 감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처의 감각>은 애니메이션 연속체 위에서 토착적 고유종인 꿈과 원주민, 원주민과 정착민 주체 사이의 귀어한 마주침, 곧 이종 간 관계의 가능성을 호출하면서도, 그 가능성이 인간중심주의적 정동 체제 안에서 불순한 접촉으로 재코딩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여자는 야생의 꿈을 살린 보호자로 등장함으로써 생츄어리의 정동적 존재론을 구체화하지만, 자본주의적 사회는 그 가능성을 곧바로 규범 위반의 징후로 전환한다.

이때 작품의 핵심은 인물들이 어떤 감정을 품느냐가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떤 이동을 강제하고 어떤 이동을 금지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머물러야 하는 존재로, 누가 떠날 수 있는 존재로 배치되는가에 있다. 반복되는 이동은 단순한 장소 변경이 아니라 감금과 사육, 종별화의 질서가 신체를 통해 집행되는 방식이다. 이 질서에 대한 균열은 동일한 형태로 나타

나지 않는다. 남자가 아내와 자식을 떠나 옛 여자친구에게 돌아가는 선택이 또 다른 귀속의 자리로 이동하는 행위에 가깝다면, 꿈의 아내가 자식을 죽인 뒤 도시 정착 이전의 동굴로 되돌아가는 장면은 정주와 사육의 체계 자체를 거슬러 오르는 이동으로 감각화된다. 이 후자의 귀환은 감금형 세계가 설정한 삶의 경로를 수용하기보다, 그 바깥의 관계적 시간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로 제시된다. 이동이 배치의 기술이라면, 이러한 귀환은 그 배치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규칙에 균열을 내는 실천이며, 작품은 그 균열의 감각을 여자의 선택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 긴장을 따라갈 때에만, 작품에서의 되돌아감은 단순한 회귀나 후퇴가 아니라 감금형 세계를 가로지르는 감각의 재배치, 다시 말해 어떤 관계를 지속하고 어떤 관계를 중단할 것인가에 관한 존재론적 선택으로 읽힌다.

이러한 감각의 재배치 문제는 작품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종별화된 분리를 규범화하는 정동 체제 속에서 가축화의 정동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유통되며, 돌봄의 언어는 애착을 조직하는 동시에 관리와 분리를 정당화한다. 보호와 책임의 언어로 포장된 돌봄은, 관리 가능한 생명으로의 번역을 통해 분리와 이동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든다. 예컨대 ‘푸바오’ 환송을 둘러싼 집단적 애착은,⁴⁰⁾ 꿈을 향한 돌봄이 종종 야생과의 공존이 아니라 관리된 조건에서의 ‘순수’로 조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그 정동의 배치는 ‘사육 꿈’의 방치라는 비대칭과 나란히 존재하며, 돌봄이 보호의 언어로 말해질 때조차 감금/처분의 질서가 동시에 유지되는 구조를 환기한다. 중요한 것은 이 비대칭이 단지 ‘좋은 돌봄’과 ‘나쁜 방치’의 대비가 아니라, 돌봄의 정동이 서로 다른 제도적 장치들—전시와 교환의 장치, 그리고 사육과 추출의 장치—을 가로지르며 동일한 방식으로 생명을 관리

40) 2014년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방한 이후 에버랜드로 들여온 러바오와 아이바오의 첫 새끼로, 2020년 7월 20일에 대한민국 최초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판다이다.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때 푸바오 사례는 ‘돌봄의 정동’이 전시와 교환의 장치 속에서 유통되는 한 양식을 보여주며, 사육 곰의 사례는 동일한 정동이 사육과 추출의 장치 속에서 어떤 처분 논리로 전환되는지를 드러낸다.

사육 곰의 반복된 탈출과 그에 대한 사살·포획의 대응은, 이 비대칭이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곰의 생을 감금과 처분의 질서에 종속시키는 제도적 현실임을 드러낸다. 이때 응답을 둘러싼 수요와 거래, 그리고 사육장의 구조(‘뜬장’)는 곰의 신체를 건강·상품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네크로-케어의 기술로 이어진다.⁴¹⁾ 즉, 한쪽에서는 애착과 보호의 정동이 ‘순수한 돌봄’으로 유통되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동일한 종(種)의 신체가 추출과 처분의 경제에 편입된다. 돌봄이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호출될수록, 역설적으로 죽음 이후까지 신체를 관리·활용하는 체제의 작동은 더 비가시화된다.

이 제도적 조건은 우발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 형성 과정에는 일련의 정책적 전환이 자리한다. 1981년 재수출용 수입 권장, 1985년 수입 금지,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가입 이후의 판로 차단, 1999년 ‘노화 개체’ 응답 채취 합법화는,

41) 다큐멘터리 <생츄어리>는 1980년대 국가 홍보 영상인 ‘대한뉴스’를 재매개함으로써, 곰 사육과 응답 채취가 경제 개발과 농가 소득 증대의 언어로 정당화되던 시기의 시각적·담론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특히 해당 영상에 포착된 사육 환경—몸길이 120~190cm에 이르는 곰이 지면에서 약 30cm 떠 있는 이른바 ‘뜬장’에 평생 갇혀 지내는 구조—은 곰의 생을 관리·통제·추출의 대상으로 조직하는 기술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좁은 공간에 다수의 개체를 수용하고 기본적인 위생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이 구조는, 곰의 신체를 ‘살아 있는 생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환원하는 네크로-케어의 작동 방식을 시각적으로 증명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탈출 시도는, 보호의 실패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신체적 반응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대한뉴스 제1557호 - 야생동물 사육>, 국립영상제작소, 1985.9.6., <https://www.youtube.com/watch?v=pKSeeovMrd8>. (접속일: 2026.1.10.)

멸종위기 동물이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가축처럼' 사육되는 역설을 제도적으로 구조화했고 사육 고품의 수를 급증시켰다.⁴²⁾ 이는 돌봄과 보전의 언어가 추출과 처분의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고정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육 고품을 둘러싼 애착과 무관심, 탈출과 사살, 보호 담론과 처분 관행은 한 덩어리의 감금형 농장 논리로 연결되며, <처의 감각>이 겨냥하는 '감금의 감각'과 직접 맞물린다.

이러한 논리는 특정 산업에 국한된 예외가 아니라 현대 축산 체제를 지탱하는 일반적 원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공장식 축산은 동물의 땅을 인간이 점령하고 동물에게 '비인간'으로서의 삶을 강제하는 식민화의 공간 정치로 읽힐 수 있다. 공장식 축산은 '감금형 농장'을 통해 가축화된 동물만이 아니라 감금성(carcerality) 그 자체를 생산한다. 감금성은 감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구금·수용·감시·출입 통제 등 근대의 공간 정치 전반에서 반복되는 통치 기술로 작동해 왔다. 요컨대 감금은 특정 공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특정 신체의 이동을 통제하고, 자아/타자의 경계를 공간적으로 생산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종별화된 생물학적 형태로 자연화된 장소가 감금형 농장이다. 그런 점에서 감금형 농장은 식민주의적 신체 사유를 자연화하는 생명정치적 장소라 할 수 있다.

감금형 농장이 작동할 때 접근 차단과 이동 통제를 통해 신체의 경계가 생산되고, 사육과 번식의 통제, 도살과 폐기의 절차로 이루어진 폭력은 물리적 사건을 넘어 관계와 감각의 수준으로 확산된다. 이와 관련하여, 켈리 스트루더스 몬포드(Kelly Struthers Montford)는 감금과 축산업이 환경과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종 감금성(multi-species carcerality)의 실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몬포드는 정착민들의 맥락에

42) 임성희, <[임성희의 환경리포트]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해방일지 : 죽어야만 나올 수 있다... 사육곰의 참혹한 모습>, 『오마이뉴스』, 2024.11.8.

서 다중 감금적 사례는 네 가지 증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바로, 식민주의적 봉쇄 전략(colonial tactics of enclosure), 동물성의 해체(de-animalization), 소외되고 착취적인 노동(alienated/exploitative labour), 독성 및 존재론적 제약(toxicity and ontological constraint)이다.⁴³⁾ 이런 의미에서 다중 감금성의 독성은 존재론 자체에 스며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식민주의적 역사의 맥락에서 감금형 농장은 동물뿐만 아니라 동물화를 통해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다중 감금성의 정동적 확장으로 드러난다. 단적으로,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실천은 소수자 집단을 인종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벌어진 해수구제 사업이 그렇듯이, 동물과 관련된 인종화 과정은 지배 집단의 피지배 집단에 대한 권력 유지에 기여하고, 시민으로서 그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데 있어 뚜렷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는 법적 시민권이 아닌 시민성으로부터의 정동적 배제, 즉 정동적 시민권의 박탈로 드러난다. 고연옥의 희곡을 통해 표명된 ‘처의 감각’은 바로 이러한 박탈의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주의가 자연화된 상태에서의 인간이 동물 농업으로 매개되지 않는 식량 생산, 재산 관계로 매개되지 않는 동물 및 토지와와의 관계, 궁극적으로 감옥 없는 처벌에 대해 생각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처의 감각>이 드러내는 박탈의 감각은 토지 박탈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처의 감각>은 이와 같은 ‘공간의 정치’가 그저 권력과 자본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규범화하는 신체와 감각의 문제이며, 바로 여기에서 대안적 가능성이 마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처의 감각>은 약자로서의 ‘처(妻)’의 위치와 배치, 더 나

43) Kelly Struthers Montford, “Towards a Theory of Multi-species Carcerality,” *Colonialism and Animality*, ed. Kelly Struthers Montford and Chloë Taylor, Routledge, 2020.

아가 재배치를 통해 ‘몸 둘 바’의 감각, 즉 ‘처(處)’의 감각에 대한 규범화는 물론, 탈규범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다.

종별화(가축화)의 논리는 <처의 감각>에서 무엇보다 공간의 전환과 신체의 배치를 통해 가시화된다. 여자의 몸이 야생에서 도시로 옮겨지는 과정은, 토착적 세계가 문명적 세계로 편입되는 식민적 변형이자, 관계적 공존이 관리·처분 가능한 생명으로 번역되는 감금의 문법이 신체에 새겨지는 과정이다. 역사적 우화로서의 <처의 감각>은 토착적 세계를 억압하는 문명적 세계의 역학을 ‘감금형 농장’의 축산업적 체제로 정동적으로 번역한다. 그리고 그 번역은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동굴’이라는 공간 표상을 통해 응축된다. 남자는 일상의 피로와 무력감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사회 구조의 문제로 붙들기보다, “여전해. 굴 속 같은 것이.”라고 현재를 감각화하고, 더 나아가 “난 말이야. 계속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기분이 들어. (...) 그때마다 내 발목을 잡는 게 뭘 줄 알아? 여기에 너와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떠오르면 몸이 굳어버려.”라고 말하며,⁴⁴⁾ 여자와 아이들의 존재를 자신의 소진을 환기하는 정동적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때 돌봄은 환대나 상호의존의 언어로 승인되지 못하고, 남자의 ‘자기주권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재배치되며, 여자의 돌봄은 곧바로 혐오/회피의 정당화로 접속된다.

중요한 것은, 이 ‘동굴’이 단지 원초적 신화의 배경이 아니라 축산업적 감금 체제가 정동적으로 압축된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남자의 발화에서 동굴은 ‘가정’의 내부로 옮겨온 감금이며, 이 감금은 곧 순수/불순, 인간/비인간의 경계를 재건하려는 충동으로 이어진다. 이어지는 16장에서 남자는 ‘순수 박물관’을 향한 충동을 드러내며 정치를 벗어나 이동한다. 이 이동은 제도적 질서에 대한 ‘불응’이라기보다, 이종 간 접촉이 이미 ‘오염’

44) 고연옥, 『처의 감각』, 50쪽.

으로 규정된 세계에서 인간성의 경계를 회복하려는 존재론적 도피로 제시된다. 따라서 남자가 떠나려는 순간, 여자는 아내라는 사회적 신분 이전에 ‘곰과의 접촉’이 각인된 몸으로 호명되며, 그 호명이 곧 순수/불순의 분할을 작동시킨다. 그런 점에서 남자가 지향하는 ‘순수’는 이종간 접촉으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의 인간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남자의 인간성은 여자의 동물성과 대비됨으로써 그 의미를 확보한다. 여자는 곰으로 표상되는 동물성과의 접촉, 이로 인한 생츄어리의 정동적 존재론을 체현한 존재다. 그렇다면 남성은, 이러한 접촉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동물성과의 분리, 더 나아가 격리를 인간적 ‘순수’의 전제로 삼는 셈이다. 이는 허구적 설정이 아니라 역사적 문법이다. 예컨대 1907년 도쿄권업박람회에서 조선인 남녀가 ‘관람 가능한 대상’으로 전시된 사건은, 피식민자의 몸을 자연화·동물화하여 문명/자연의 위계를 시각적으로 고정하는 식민주의적 기술을 보여준다.⁴⁵⁾ 다시 말해, 식민 지배 집단은 피식민 집단의 역사적 존재론에 기입된 다종관계적 토착성을 인종차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여 문화적 위계를 만들어냈다. 이와 같은 역사를 감안했을 때, 남자는 순수 박물관으로의 이동을 통해 종별화의 정동을 인종화의 정동으로 옮겨내는 식민주의적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 전이는 단순히 인종적 구분에 머물지 않고 젠더적 위계를 경유하며, 남자의 ‘순수’는 인종적 위계를 젠더적 위계 속에 내장함으로써, 여성의 동물화를 통해 인간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식민주의적 젠더화의 논리를 재생산한다.

〈처의 감각〉에서 남자의 애착을 불러일으키는 ‘순수’는 또한 ‘향수’이기도 하다. 존재론적 불안의 반증으로서 ‘순수 박물관’에 대한 남자의 애착은

45) 조선인 전시는 1903년 오사카 내국권업박람회에서도 이미 진행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간 전시는 제국주의적 시선과 우생학적 인류학 담론이 결합된 시각적 문화정치의 장치로 기능했다.

정착민의 시간적 감각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순수' 또는 '향수'를 통해 남자는 정착민 정동의 구체화된 형상임을 드러낸다. 남자의 충동이 '순수'를 향하고 있는 것은 정착민 사회가 동종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폭력의 내력을 자연화하고, 더 나아가 낭만화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역사적으로 박물관은 박물관의 애니머시를 드러내는 공간으로 기능해 왔는데, 이와 같은 박물관의 '네크로-케어'는 종종 정착민 식민주의적 위계에 입각한 동물성의 정동적 자원화에 힘입어 수행된다. 그러나 <처의 감각>이 제시하는 '순수 박물관'은 남자의 이전 여자 친구가 남긴 흔적—담배꽂초, 귀걸이, 침대 시트, 메모지와 연필 등—을 비인간성으로서의 동물성 대신 '인간성'의 표식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종사회적 충돌이 아니라 동종사회적 교섭의 흔적이다.

동종사회적 교섭의 흔적은 남자의 이전 여자친구가 아니라 현재 그의 곁에 머무는 여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여자는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것이다. 요컨대, <처의 감각>에서 여자를 가축으로서 머물게 하고, 남자를 인간으로서 떠나게 하는 공간의 정치는 낭만적 사랑에서 성적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이성애규범적 시간성을 토대로 작동하고 있다. 물론 이 시간성은 이성애규범적인 동시에 정착민 식민주의적이기도 하다. 성적 재생산을 통한 정착민 사회의 지속은 물론, 그 사회의 일원이 떠안고 있는 존재론적 불안을 이주의 가능성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자의 존속살해로 귀결되는 <처의 감각>은 이와 같은 시간성과 함께 이해될 수 있다. 결말의 선택은 돌발적인 반전이라기보다, 정치를 이탈하는 이동이 반복되고 순수의 요구를 따르라는 압박이 강화되며 그 요구에 대한 불복이 누적되는 과정 속에서, 가축화된 시간의 연쇄를 스스로 끊어내는 방식으로 마침내 출현한다. 논란과 함께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킨 이 파격적 결말⁴⁶⁾은 반항적인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아버지의 권력 같은 것이 아니라, 성적 재생

산을 구실로 동물과 여자를 가축화하는, 다시 말해 객체화되고 균질화된 희생자 지위로 축소하는 정착민 정동 체제에 대한 거부이자 식민화의 유산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이 결말을 ‘탈정동(disaffection)’으로 읽는다면,⁴⁷⁾ 그것은 단번의 선언이라기보다 감금형 질서 속에서 반복되는 무시·착취·규범화의 감각이 누적된 끝에 출현하는 감각의 단절, 관계 맺기의 중단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여자의 선택은 재생산의 계보학적 시간의 부인으로서 축산업과 가부장제라는 정동 체제에 대한 탈정동을 실천함으로써 대안적 시간성을 호출한다고 읽을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작품의 제17장 “동굴”은 결말의 의미를 한 번

46) 〈처의 감각〉의 결말은 작품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가장 집중된 지점이다. 이 희곡은 초연 당시 고연옥 작가와 고선웅 연출의 합의에 따라 공연 제목이 〈꿈의 아내〉로 결정되었으나, 제작 과정에서 텍스트 해석과 연출 방향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창작 초연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은 고선웅의 각색본을 중심으로 무대화되었으며, 특히 결말부에서 원작과 달리 여자가 아이를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고, 아이를 품은 채 고통과 조우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연출은 원작이 제기하는 성적 재생산, 보호, 폭력의 문제를 비극적 단절보다는 관계의 지속 혹은 화해의 이미지로 전이시키며, 여성/동물/자연의 결합을 상대적으로 낭만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후 2017년 서치라이트 낭독공연과 2018년 시즌프로그램(김정 연출)에서는 고연옥의 원작 텍스트에 다시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김정은 결말을 포함한 주요 장면에서 작가의 문제의식을 보다 충실히 재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공연사적 이력은 〈처의 감각〉의 결말이 단일한 의미로 고정되지 않으며, 연출의 선택에 따라 여성의 행위가 단절의 폭력으로 읽힐 수도, 혹은 관계의 지속을 감내하는 선택으로 재배치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47) ‘탈정동’은 단순한 감정의 결여가 아니라, 정동이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체제에 대한 정치적 거부를 의미한다. 신 야오(Xine Yao)는 ‘무감정(unfeeling)’을 냉담함이 아니라 식민주의적 감정 체계에 대한 비동의와 저항의 형태로 읽어내며, 마틴 마날란산 4세(Martin F. Manalansan IV)는 퀴어 이주자의 일상 속에서 감정적 비가시성과 무감정이 사회적 규범에 대한 탈주적 전략으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Xine Yao, *Disaffected: The Cultural Politics of Unfeeling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Duke University Press, 2021; Martin F. Manalansan IV, “Servicing the World: Flexible Filipinos and the Unsecured Life”, Edited By Janet Staiger, Ann Cvetkovich, Ann Reynolds, *Political Emotions*, Routledge, 2010, pp.215-228.)

더 비틀어 세운다. 여자는 이 축산업적 체제의 무대적·정동적 응축물로 의 미화되어 왔던 ‘동굴’을, 남자의 소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은유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도 동굴이 있네?”라는 발화는 동굴을 ‘남자가 갇혀 있다고 느끼는 곳’으로만 두지 않고, 감금의 질서를 다시 호출해 되돌려 세우는 방식으로 동굴을 재배치한다.⁴⁸⁾ 이어 “애들이 죽어야 내가 떠날 수 있어요.”⁴⁹⁾라는 말은 재생산의 시간성이 강요하는 ‘머무름’을 스스로 해체 하는 결단을 노출시키며, “(동굴 안을 향해) 이봐요? 아직 거기 있지요? …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단 하루라도, 나 당신과 살고 싶어요.”⁵⁰⁾라는 연쇄는 돌봄이 더 이상 상호돌봄으로 환류하지 않는 세계에서, 돌봄·폭력의 회로를 끊기 위한 선택이 어떻게 공간(동굴)의 재점유로 수행되는지를 보여준다. 즉, 탈정동은 감정의 부재나 냉소가 아니라, 가축화된 시간(재생산)의 연쇄를 지속시키는 감금의 장소를 되돌려 잡고 그 질서를 중단시키는—공간적·정동적 단절의 실천으로서 출현한다.

〈처의 감각〉에서 여자는 가축화된 세계를 벗어나 재야생화를 선택함으로써, 정착민 폭력의 질서를 거부하고 ‘처’라 불린 약자의 행위주체성을 드러낸다. 이는 ‘약자’라는 사회적 위치에 고정되지 않고, 아버지의 권력이 관철되는 세계 속에서도 다중 관계의 생츄어리를 향해 나아가려는 관계적 자율성의 힘이다. 이러한 생명의 운동성, 다시 말해 가축화에 저항하고 관계의 조건을 다시 짜며 살아남는 힘을 ‘애니머시’로 부를 때,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감금형 농장이 생산하는 비인간화의 질서에 맞서는 구조적 반작용의 이름이 된다.

48) 고연옥, 『처의 감각』, 63쪽.

49) 고연옥, 『처의 감각』, 64쪽.

50) 고연옥, 『처의 감각』, 64쪽.

5. 생츄어리의 토착적-관계적 정동지리: 중간 연대의 변혁적 정치를 위하여

생츄어리는 정착민 식민주의가 구축한 자연/문화의 이분법과 생명의 위계화를 교란하는 토착적-관계적 정동지리의 가능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근대 생명정치가 자연을 점령·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비인간’ 동물과 ‘비백인’ 인간을 통제와 동일화한 논리 아래 배치해 왔다면, 신화와 생츄어리는 그 폭력 속에서 훼손된 관계의 흔적을 ‘복원’이 아니라 재서사화와 재배치의 방식으로 다시 작동시키는 장치가 된다. 신화가 관계의 훼손을 이야기의 형식으로 드러낸다면, 생츄어리는 그 관계를 몸과 장소의 층위에서 다시 실험하게 만드는 현재적 장이다.

〈골든 카무이〉는 곰 신화의 재서사를 통해 원주민·정착민·동물의 뒤엎힘을 다종적 생존의 지형으로 그려내며, 생츄어리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곰 신화의 관계성이 정착민 서사의 추진력에 포섭되는 순간 약화되며, 생츄어리는 다종적 변영의 장이라기보다 정착민 질서를 정당화하는 ‘관리된 다종성’의 공간으로 기울어진다. 이때 신화의 탈식민적 잠재력은 살아 있으나, 끝내 제도적 인프라의 논리로 귀속되는 한계를 드러낸다.

반면 〈처의 감각〉은 ‘감금형 농장’이 상징하는 사육과 통제와 정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된 세계를 그린다. 〈처의 감각〉은 ‘감금형 농장’의 사육·통제 정동이 가족과 일상의 층위로 침투한 세계를 통해, 돌봄이 상호돌봄이 아니라 무시·착취를 유지하는 네크로-케어로 전도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자식을 죽이는 결말은 바로 그 전도된 돌봄의 순환을 끊어내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탈정동의 실천이며, 이로써 작품은 생츄어리의 식민성을 폭

로하는 동시에 관계의 감각을 다시 배치하는 탈식민적 행위주체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두 작품은 신화와 생츄어리를 매개로 파괴된 관계의 흔적을 현재화하지만, 〈골든 카무이〉가 ‘포섭된 다중성’의 한계를 드러낸다면 〈처의 감각〉은 ‘거부로서의 공존’이라는 방식으로 탈식민적 행위주체성의 실험을 밀어붙인다. 생츄어리는 두 작품이 교차하는 사유의 장으로서, 조화의 낙원이 아니라 충돌과 조정 속에서 관계가 수행되는 자리다. 신화가 관계의 훼손을 서사로 드러낸다면, 생츄어리는 그 서사를 물질적·정동적 실천으로 번역하여 정동적 역량을 관계적으로 재배치하는 회로가 된다.

신화와 생츄어리를 사유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토착적 진리’의 복원이나 이상화된 공존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식민성의 잔해 속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관계의 흔적을 다시 읽고 재배치하는 일이다. 종간 연대의 변혁적 정치는 바로 이 재배치의 실천으로서, 정동가능성이 비대칭적으로 배분된 세계에서 관계와 역량의 분배를 다시 짜려는 시도이며, 신화와 생츄어리는 그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동지리의 장치가 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고연옥, 『처의 감각』, 이음, 2016.

노다 사토루(野田サトル), 『골든 카무이』(전31권), 대원씨아이, 2022.12.19.

왕민철, 〈생츄어리〉, 시네마달, 2022.

2. 논문과 단행본

김성희, 「동시대 희곡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과 신화 다시쓰기 방식 - 〈에비대왕〉과 〈처의 감각〉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제67호, 한국연극학회, 2018. 8. 5-46쪽.

나이트 치즈코, 「아이누의 히로인과 전쟁의 정동」, 『연결신체학을 향하여 - 정동적 존재론과 정의』,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연구소 편, 산지니, 2024, 67-86쪽.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하기』, 최유미 역, 마농지, 2021.

로런 벌랜트, 『잔인한 낙관』, 박미선·윤조원 역, 후마니타스, 2024.

수 도널드슨·윌 킴리카, 『주폴리스 : 동물 권리를 위한 정치 이론』, 박창희 역, 최명에 감수, 프레스타, 2024.

조르지오 아감벤,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벗겨벗은 생명』, 박진우 역, 새물결, 2008.

Achille Mbembe, "Necropolitics," *Public Culture* 15(1), 2003.

Alexis Turner, *Taxidermy*, Rizzoli, 2013.

Billy-Ray Belcourt, "Animal Bodies, Colonial Subjects: (Re)Locating Animality in Decolonial Thought", *Societies* 5(1), 2015, pp.1-11.

Denise Ferreira da Silva, *Toward a Global Idea of Ra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7.

Giorgio Agamben, *Means without End: Notes on Politic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0.

Karen Emmerman, "Sanctuary, Not Remedy, The Problem of Captivity and

- the Need for Moral Repair,” *The Ethics of Captivity*, edited by Lori Grue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213-230.
- Kelly Struthers Montford, “Towards a Theory of Multi-species Carcerality,” *Colonialism and Animality*, ed. Kelly Struthers Montford and Chloë Taylor, Routledge, 2020, pp.277-296.
- Lauren Corman, “Ideological Monkey Wrenching: Nonhuman Animal Politics beyond Suffering,” *Animal Oppression and Capitalism, Vol.2: The Oppressive and Destructive Role of Capitalism*, ed. D. Nibert, Santa Barbara, Praeger, 2017, pp.252-269.
- Martin F. Manalansan IV, “Servicing the World: Flexible Filipinos and the Unsecured Life”, Edited By Janet Staiger, Ann Cvetkovich, Ann Reynolds, *Political Emotions*, Routledge, 2010, pp.215-228.
- Mel Y. Chen, *Animacies: Biopolitics, Racial Mattering, and Queer Affect*, Duke University Press, 2012.
- Patrick Wolfe, “Settler Colonialism and the Elimination of the Native,”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8(4), 2006, pp.387-409.
- Patrick Wolfe, *Settler Colonial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Anthropology*, Continuum Publishing Group, 1999.
- Xine Yao, *Disaffected: The Cultural Politics of Unfeeling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Duke University Press, 2021.

3. 기타자료

- 〈대한뉴스 제1557호 - 야생동물 사육〉, 국립영상제작소, 1985.9.6., <https://www.youtube.com/watch?v=pKSeeovMrd8>. (접속일: 2025.11.10.)
- 〈정호기(征虎記)〉, 『매일신보』 1917.11.18. 3면.
- 六堂閑人, 〈建國初頭以來久遠朝鮮의 表象 (6) - 朝鮮歷史及 民俗志上의 虎〉, 『동아일보』, 1926.1.1.~2.11.
- 박소현, 〈미술관 옆 동물원, 그 시각적 애완(愛玩)의 역사와 이별하기〉, 『월간미술』, 2015.5.14., <https://monthlyart.com/01-special-feature/special-featu>

re-시선의-정치-동물원을-다시본다-2/. (접속일: 2026.1.10.)

이기환, <조선 호랑이가 멸종된 이유...‘일본 남아의 기개!’ 희생양이었다>, 『경향신문』, 2021.12.20.

임성희, <[임성희의 환경리포트]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해방일지 : 죽어야만 나올 수 있다... 사육곰의 참혹한 모습>, 『오마이뉴스』, 2024.11.8.

Global Federation of Animal Sanctuaries, “What Is a Sanctuary?”, GFAS 공식 웹사이트, <https://sanctuaryfederation.org/about-gfas/what-is-a-sanctuary>. (접속일: 2026.1.10.)

SANCTUARY, Merriam-Webster.com Dictionary, Merriam-Webster,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sanctuary>. (접속일: 2026.1.10.)

Zoe Todd, “Commentary: The Environmental Anthropology of Settler Colonialism, Part I,” Engagement, 2017.4.11., <https://aesengagement.wordpress.com/2017/04/11/commentary-the-environmental-anthropology-of-settler-colonialism-part-i/>. (접속일: 2026.1.10.)

Abstract

Mythical Biopolitics and the Affective Geographies of
Sanctuary
- A Decolonial Historicization of Bear Mythology in East Asia

Kwon, Doo-Hyun(Yonsei University)

Settler colonialism produces a specific mode of biopolitics that persists not only within settler states but also within global regimes that inherit, expand, and naturalize their power. This biopolitical mode often manifests as an affective modulation of multispecies power relations encompassing both humans and nonhumans. The space in which such modulation materializes most vividly is the sanctuary. To locate the sanctuary within the cartography of settler-colonial biopolitics, this paper compares two works set in different historical and geographical contexts—Noda Satoru’s manga *Golden Kamuy* and Ko Yeon-ok’s play *The Sensibility of a Wife*. Through these works, it examines how human-animal interactions signify the (re)formation of settler-colonial affective geographie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process of making a sanctuary.

Golden Kamuy presents the possibility of multispecies coexistence through the re-narration of an Ainu bear myth; however, once that myth is appropriated within the settler narrative, its decolonial potential becomes absorbed into the institutional order. In contrast, *The Sensibility of a Wife* depicts a world in which the affect of the “penitentiary farm” extends to society at large, where care and control overlap within a violent regime and the sensibility of rewilding is enacted. While the former illustrates a “multispecies coexistence through incorporation,” the latter envisions “coexistence through refusal.”

Through this contrast, the paper argues that myth and sanctuary form a cyclical structure of historical memory and affective practice, functioning as two axes of

decolonial thought that disrupt the order of colonial biopolitics. Furthermore, it explores the transformative politics of interspecies solidarity that emerges from affective reconfigurations in which humans and animals, indigeneity and coloniality, settlement and movement intertwine.

(Keywords: Myth, Biopolitics, Sanctuary, Affective Geography, Animacy, *Golden Kamuy*, *The Sensibility of a Wife*)

논문투고일 : 2026년 1월 10일

심사완료일 : 2026년 1월 27일

수정완료일 : 2026년 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26년 2월 14일